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농업정보

158호

주간 2017. 11. 6. ~ 11.12.



전남 농업기술원

목 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평년(최저기온: 4~11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전반에 조금 낮겠고, 그 밖의 기간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 보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꽃곰팡이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11월 쌀 가격 및 생산량 전망
- ▶ 배추 생산 및 가격 전망
- ▶ 무 생산 및 가격 전망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우리 닭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비축열 및 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의 시설 난방효과 비교
- ▶ 청경채 시설재배를 위한 비료 사용량 추천
- ▶ 섬초 건나물 제조를 위한 원료 전처리방법
- ▶ 건조방법에 따른 블렌딩 소재 제조방법
- ▶ 내년 벼농사 준비 지금부터
- ▶ 전남도, 밭토양 적정 시비관리 필요
- ▶ 전남 쌀 함량 60%로 만든 쌀 맥주 개발
- ▶ 전남농기원, 매실 하반기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
- ▶ 가뭄에도 잘 자라는 벼 육종소재 개발
- ▶ 밀과 보리, 파종 적기를 놓쳤다면 이듬해 봄에 하세요
- ▶ 풀사료, 눌러주고 물길 만들어 겨울 준비 하세요
- ▶ 세계시장 석권한 국산 접목선인장, 새 품종 선보인다
- ▶ 우리 품종으로 생산한 돼지고기, 부드럽고 고소해

- ▶ '17년 쌀·밭 등 직접지불금 지급(1조 468억원)
- ▶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 농식품부, 2017년산 배 수급 안정 대책 추진
- ▶ 국제농업박람회서 원예농산물 1천억 구매약정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2

- ▶ 여수시,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 광양시, 친환경 유기농 쌀 전문도정시설 준공식 가져
- ▶ 고흥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 보성군, AI 청정지역 사수 총력
- ▶ 화순군, 2018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신청하세요
- ▶ 해남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하세요

9 해외 농업정보 38

- ▶ 대만, 남아프리카산 사과 유충 발견 수입 잠정 중단
- ▶ 일본, 2016년 일본의 철화수입 13억본 돌파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11. 6.(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하락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6% 하락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3% 하락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2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과수·약용작물 토양관리는
- ▶ 겨울 앞두고 무·대추·단호박 요리로 건강 지켜요
- ▶ 겨울이 시작된다... 입동(立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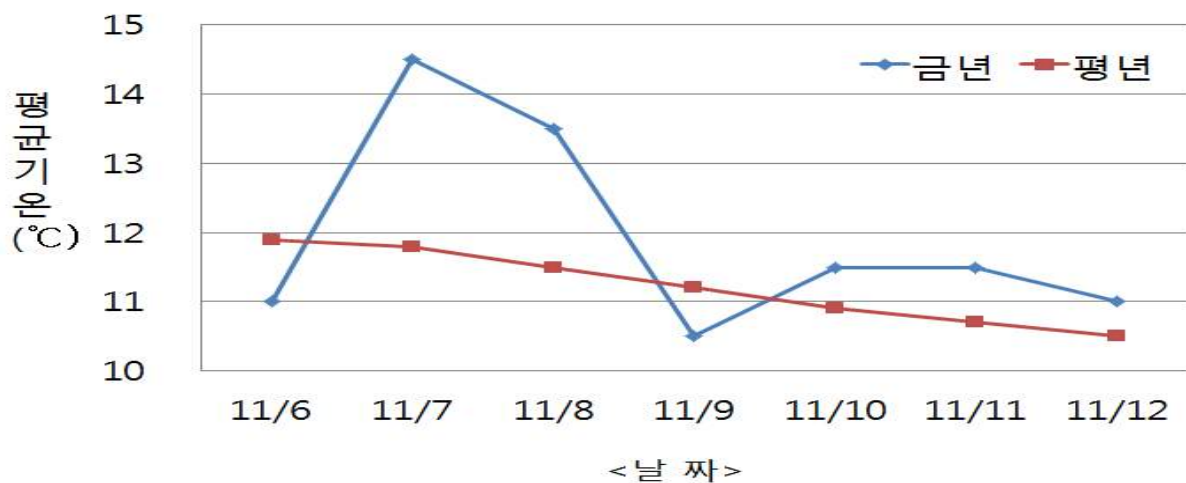
1

주간 기상 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6일 ~ 11월 12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1.9℃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17.7℃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6.1℃ (평년대비 0.5℃ 낮음)
- 강 수 량 : 1.9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9	11.2	0.7	17.7	16.7	1.0	6.1	6.6	-0.5	1.9
11. 6.(월)	11.0	11.9	-0.9	18.0	17.9	0.1	4.0	6.9	-2.9	1.4
11. 7.(화)	14.5	11.8	2.7	21.0	17.7	3.3	8.0	7.0	1.0	1.8
11. 8.(수)	13.5	11.5	2.0	17.0	17.1	-0.1	10.0	6.9	3.1	2.1
11. 9.(목)	10.5	11.2	-0.7	17.0	16.6	0.4	4.0	6.8	-2.8	2.0
11. 10.(금)	11.5	10.9	0.6	17.0	16.2	0.8	6.0	6.5	-0.5	2.1
11. 11.(토)	11.5	10.7	0.8	17.0	16.0	1.0	6.0	6.3	-0.3	2.1
11. 12.(일)	11.0	10.5	0.5	17.0	15.7	1.3	5.0	6.1	-1.1	1.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6일 ~ 11월 12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2.6℃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17.3℃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8.0℃ (평년대비 0.3℃ 낮음)
- 강 수 량 : 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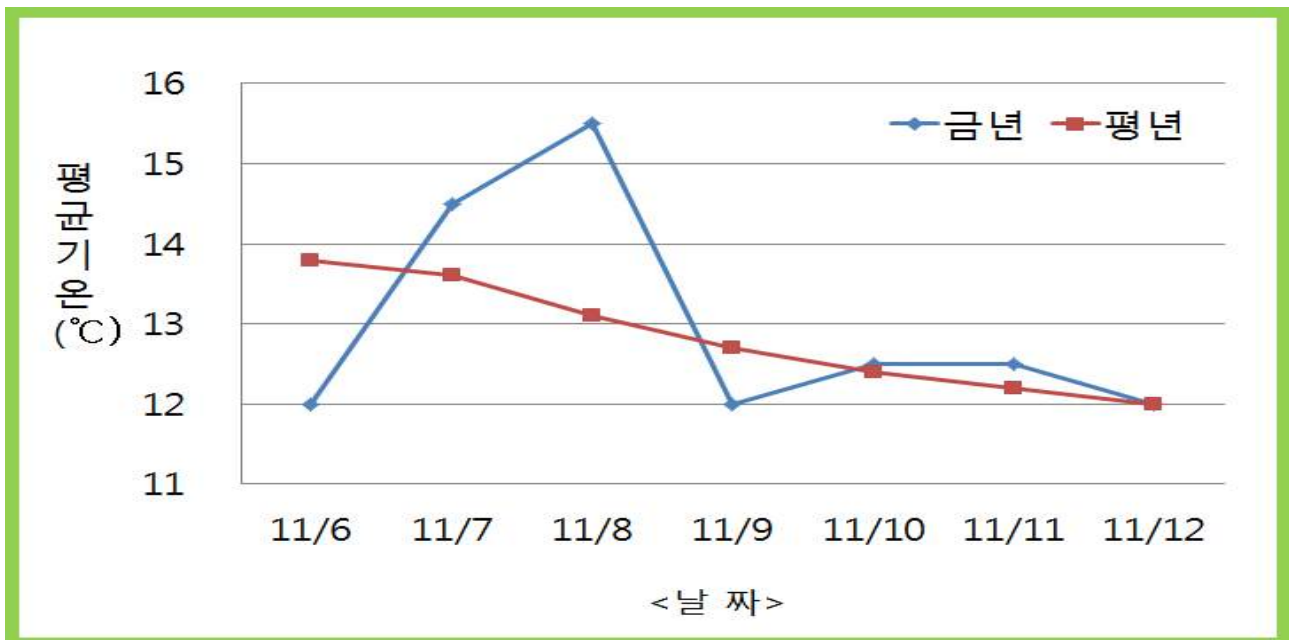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2.6	12.2	1.3	17.3	17.1	0.2	8.0	8.3	-0.3	1.7
11. 6.(월)	12.0	12.8	5.0	18.0	18.0	0.0	6.0	8.8	-2.8	1.5
11. 7.(화)	14.5	12.7	1.8	20.0	17.8	2.2	9.0	8.7	0.3	1.6
11. 8.(수)	14.0	12.4	1.6	17.0	17.3	-0.3	11.0	8.6	2.4	2.0
11. 9.(목)	11.5	12.2	-0.7	16.0	17.0	-1.0	7.0	8.4	-1.4	1.7
11. 10.(금)	12.5	11.9	0.6	17.0	16.6	0.4	8.0	8.1	-0.1	1.7
11. 11.(토)	12.5	11.8	0.7	17.0	16.5	0.5	8.0	8.0	0.0	1.7
11. 12.(일)	11.5	11.5	0.0	16.0	16.2	-0.2	7.0	7.8	-0.8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1월 6일 ~ 11월 12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13.0℃ (평년대비 0.2℃ 높음)
- 최고기온 : 17.0℃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9.0℃ (평년대비 0.8℃ 낮음)
- 강 수 량 : 1.5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0	12.8	0.2	17.0	16.5	0.5	9.0	9.8	-0.8	1.5
11. 6.(월)	12.0	13.8	-1.8	17.0	17.5	-0.5	7.0	10.6	-3.6	1.5
11. 7.(화)	14.5	13.6	0.9	19.0	17.3	1.7	10.0	10.5	-0.5	1.5
11. 8.(수)	15.5	13.1	2.4	19.0	16.8	2.2	12.0	10.1	1.9	1.7
11. 9.(목)	12.0	12.7	-0.7	16.0	16.4	-0.4	8.0	9.7	-1.7	1.4
11. 10.(금)	12.5	12.4	0.1	16.0	16.0	0.0	9.0	9.3	-0.3	1.6
11. 11.(토)	12.5	12.2	0.3	16.0	15.8	0.2	9.0	9.2	-0.2	1.6
11. 12.(일)	12.0	12.0	0.0	16.0	15.6	0.4	8.0	8.9	-0.9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11. 1. ~ 11. 30.)

농촌진흥청에서 시설작물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바이러스병, 꽃곰팡이병,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응애류, 진딧물, 작은뿌리파리 등과 검역병해충인 딸기 세균모무늬병 등에 대한 예보를 발표했으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구 분		노지작물	시설작물
예 보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추·무 뿌리혹병 · 당근 검은잎마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 딸기 꽃곰팡이병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 · 주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 딸기 세균모무늬병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
	해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채벌레류 · 가루이류 · 진딧물류 · 응애류 · 작은뿌리파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11월 쌀 가격 및 생산량 전망

- 생산량전망 : 2017년산 쌀 예상생산량 전년 대비 24만 1천톤 감소
 - 단수는 이앙시기 지속된 가뭄과 출수·개화기 잦은 강우 등으로 전년 대비 2.8%(15kg/10a) 줄어든 524kg/10a
 - 벼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7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 대비 5.8%(24만 1천톤) 줄어든 395만 5천톤
- 가격전망 :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전년 대비 17.7% 상승한 3만 8,200원/20kg 내외 전망
 - 금년 정부 과거 시장격리 방식과 달리 신곡 수요 초과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37만톤) 매입 결정
 - 2016년산의 계절진폭(0.3%) 발생으로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수확기 시장공급 가능 물량이 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8% 줄어든 점과 단경기(7~9월) 재고 부족으로 신곡 조기 출하가 늘어난 점 등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이월재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상승효과는 일부 상쇄
 -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2015년산 쌀 가격(3만 8,040원/20kg) 수준까지 회복 전망

■ 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 작년 대비 증가

- 2017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30% 많은 147만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2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13,674ha로 조사되었다.
- 가을배추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9% 증가한 10,752kg/10a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전망 : 겨울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많아

- 2017년 겨울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4~28% 많은 32~33만톤으로 전망된다.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13% 증가한 3,819~3,924ha로 조사되었다.
- 겨울배추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13% 증가한 8,393kg/10a로 조사되었다.

□ 가격전망 : 김장철(11~12월) 가격 낮을 전망

- 11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산지 출하량 증가로 작년(7,960원/10kg)과 평년(5,640원) 동월보다 낮고, 전월(6,260원)보다도 낮은 3,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상순 가격은 강원·충청·경북의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10월 하순(3,340원/10kg)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 11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김장수요 증가로 상순 대비 상승세를 보이나, 중순 이후부터 해남의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무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무 생산량 작년 대비 증가

- 2017년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28% 많은 51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11~12월) 가격이 좋아 작년보다 11% 증가한 6,003ha이다.
- 가을무 예상단수는 파종(8~9월 상순) 이후 작년보다 16% 증가한 8,547kg/10a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전망 : 월동무 생산량 작년 및 평년 대비 증가

- 2017년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46% 많은 35만톤으로 전망된다.
-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증가한 4,618ha로 조사되었다.
- 월동무 단수는 작년보다 28% 증가한 7,616kg/10a로 조사되었다.

□ 가격전망 : 김장철(11~12월)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외대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16,450원)과 평년(10,350원)보다 낮은 18kg당 5,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다발무 도매가격은 작년(610만원)과 평년(380만원)보다 낮은 5톤 트럭당 21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 과거 김장철 가격 패턴 분석결과, 11월 가격은 김장 수요 증가로 중·하순이 상순보다 높았으나, 금년에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닭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 AI 청정화로 수출 재개 검역 협의 완료, 즉시 수출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6년 11월 이후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그간 수출이 중단된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2017년 10월 30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수출 재개를 위한 한·홍콩 검역 당국 간 협의회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한 국내 수출 작업장 55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고, 수출 시에는 양국 간 기준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신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11. 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6)	1주일전 (10/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8,000	37,800	34,500	32,400	40,860	↑ 17.3	↓ 7.0
	콩(백태)	35kg	164,800	173,800	172,600	153,000	162,800	↑ 7.7	↑ 1.2
	고구마(밤)	10kg	25,000	24,600	24,450	25,300	21,700	↓ 1.2	↑ 15.2
	감자(수미)	20kg	40,200	40,400	43,150	27,000	24,227	↑ 48.9	↑ 65.9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540	576	-	660	475	↓ 18.2	↑ 13.7
	양배추	10kg	8,000	7,100	12,250	11,300	6,380	↓ 29.2	↑ 25.4
	오이(다다기계통)	10kg	16,667	19,667	21,083	32,333	22,815	↓ 48.5	↓ 26.9
	애호박	20개	14,000	14,400	12,950	24,250	21,243	↓ 42.3	↓ 34.1
	건고추(화건)	60kg	1,310,000	1,420,000	1,360,000	580,000	785,333	↑ 125.9	↑ 66.8
	풋고추	10kg	43,400	32,800	44,350	63,250	46,523	↓ 31.4	↓ 6.7
	마늘(깐마늘)	20kg	131,400	131,400	128,000	143,000	117,733	↓ 8.1	↑ 11.6
	양파	20kg	25,000	25,000	24,600	19,950	21,330	↑ 25.3	↑ 17.2
	당근	20kg	34,200	37,600	62,350	56,300	33,373	↓ 39.3	↑ 2.5
	대파	1kg	1,740	1,620	2,010	2,343	1,760	↓ 25.7	↓ 1.1
	파프리카	5kg	23,000	27,000	26,050	22,800	23,907	↑ 0.9	↓ 3.8
	토마토	10kg	25,000	25,600	31,050	29,900	25,633	↓ 16.4	↓ 2.5
	방울토마토	5kg	21,600	21,400	26,100	23,350	14,947	↓ 7.5	↑ 44.5
	사과(홍로)	10kg	-	36,800	39,850	-	29,733	-	-
과 일 류	배(신고)	15kg	33,800	35,200	43,150	35,400	36,347	↓ 4.5	↓ 7.0
	감귤	10kg	20,800	22,800	-	20,250	18,093	↑ 2.7	↑ 15.0
	단감	10kg	23,200	24,400	-	17,950	18,534	↑ 29.2	↑ 25.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6)	1주일전 (10/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498,000	500,000	508,700	513,600	522,667	↓ 3.0	↓ 4.7
	느타리버섯	2kg	12,800	11,600	14,650	15,600	12,147	↓ 17.9	↑ 5.4
	새송이버섯	2kg	8,200	8,000	8,650	9,000	8,120	↓ 8.9	↑ 1.0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375	8,374	8,227	8,072	7,137	↑ 3.8	↑ 17.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68	1,935	2,260	1,921	1,749	↓ 2.8	↑ 6.8
	닭고기	1kg	5,130	5,494	4,991	5,842	5,871	↓ 12.2	↓ 12.6
	계란(특란)	30개	5,819	5,752	5,428	5,625	5,689	↑ 3.4	↑ 2.3
	우유	1리터	2,520	2,520	2,521	2,528	2,530	↓ 0.3	↓ 0.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11. 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41 천원	5,503 천원	5,522 천원	↑ 0.7	↑ 0.3
	거세	6,796 "	6,341 "	6,146 "	↑ 7.2	↑ 10.6
송아지 (6~7월)	암	2,929 "	2,922 "	2,567 "	↑ 0.2	↑ 14.1
	수	3,507 "	3,487 "	3,156 "	↑ 0.6	↑ 11.1
육우(600Kg)		2,953 "	2,884 "	2,998 "	↑ 2.4	↓ 1.5
돼지(110kg)		344 "	320 "	357 "	↑ 7.5	↓ 3.6
육계(원/kg)		1,455 원	1,476 원	1,588 원	↓ 1.4	↓ 8.4
계란(원/특란10개)		1,316 "	1,266 "	1,242 "	↑ 3.9	↑ 6.0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비축열 및 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의 시설 난방효과 비교

□ 배경 및 필요성

- 히트펌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에너지 효율 정보 부재로 농업인의 경영온실 환경에 맞는 선택이 어려움
- 히트펌프 종류별 정확한 에너지 효율 정보 제공으로 농가 선택 편의성 제공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토마토 시설 재배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비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는 제상시간 동안 시설 내부 온도 저하 및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나, 축열식 공기열히트펌프는 온도가 높은 주간에 축열해 사용하므로 야간에 안정적으로 열 공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음

□ 기대 및 파급효과

- 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비축열식 대비 생산성 22% 향상, 난방비용 48%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손동모, 김성준

■ 청경채 시설재배를 위한 비료 사용량 추천

□ 배경 및 필요성

- 청경채 재배지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을 위한 기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고 농산물인증을 위한 양분관리 자료로 활용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청경채 시설재배
 - 재배시기 : 봄 재배, 재배기간 45~50일
- 청경채 재배지 비료 표준 사용량(성분량, kg/10a)

밑거름			웃거름			합 계		
질 소	인 산	칼 리	질 소	인 산	칼 리	질 소	인 산	칼 리
12.9	11.5	12.6	-	-	-	12.9	11.5	12.6

- 청경채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 추천식

비 종	비료 추천식
질 소	$N(kg/10a) = 15.1 - \{1.205 \times EC\}$ $N(kg/10a) = 15.1 - \{0.0176 \times \text{질산태질소함량}(mg/kg)\}$
인 산	$P_2O_5(kg/10a) = 12.5 - \{0.0073 \times \text{토양 인산 함량}(mg/kg)\}$
칼 리	$K_2O(kg/10a) = 13.2 - \{0.9586 \times \text{토양 치환성칼리 함량}(cmol/kg)\}$

□ 기대 및 파급효과

- 건전 토양 양분관리로 작물 안정·지속재배 및 GAP 등 농산물인증 지원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선국, 김현지

■ 섬초 건나물 제조를 위한 원료 전처리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섬초는 일반시금치에 비해 당도가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으나 수확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아서 대부분 생것으로 판매하고 있음
- 섬초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나물, 냉동나물 등을 제조할 때 가공원료의 세척방법과 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블랜칭 방법이 중요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세척방법
 - 세척수는 수돗물에 0.2% 구연산수로 첨가하여 사용하고 세척 방법은 공기방울로 3~4회 세척하면 남아있는 미생물 수가 적고 외관, 이취, 색 등이 우수
- 블랜칭방법
 - 100℃ 끓는 물에 천일염 1.0%를 첨가하여 30초간 데치면 녹색도가 우수하고 비타민 A와 C·칼슘·엽록소 함량이 높았으며 색, 조직감 등 기호도 우수

□ 기대 및 파급효과

- 고품질 섬초 건나물 제조로 부가가치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
 - 섬초 원료 2,000원/kg → 섬초 건나물 6,000원/100g(3배)
- 소비자의 편이제품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섬초의 소비 촉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지수현, 이유석, 이선경, 조정숙

■ 건조방법에 따른 블렌딩 소재 제조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젊은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홍차 제조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활용
신품종 차잎 이용, 제조한 홍차에 소재를 혼합하여 블렌딩차 제조
- 블렌딩 홍차용 재료를 손쉽게 제조 가능 하도록 제조방법 구명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블렌딩 홍차용 재료 건조방법
 - 동결건조 : 재료 → 선별, 세척 → -40℃ 상태 보관 후 진공상태 (수분 감소)에서 72~96시간 온도 상승 건조 색상과 외형 양호
 - 열풍건조 : 재료 → 선별, 세척 → 열풍건조 40~50℃, 15~72시간 건조



【과일류 건조】



【꽃류, 약용작물 건조】

□ 기대 및 파급효과

- 국내 품종 차잎 이용 블렌딩 홍차 제조로 차별화, 부가가치 향상
(엽차 8,000원 → 혼합 홍차 20,000원/kg, 250% 증)
- 다양한 혼합차 제품 생산 및 차 소비량 증대 : 수입 말효차 150억 대체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최 정, 김영옥, 이보배, 오봉운, 기광연

■ 내년 벼농사 준비 지금부터

- 벼짚은 논에 돌려주어 잡초발생 억제하고 땅심 높여 수량과 품질 향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짚을 논에 넣어 주고 규산질 비료를 살포 하는 등 내년도 농사 준비를 지금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논토양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콤바인 수확 시 벼짚을 3~4등분 하여 10a당 400~600kg 정도 시용한 후에 가을갈이를 해 주면 좋은데, 이를 통해 논 토양안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고 질소·인산·칼리 등 무기성분 흡수량이 증대된다.
- 논에 투입한 벼짚은 투입 2개월 후에 절반이 부숙되고, 2년 후에 90%가 분해되어 벼가 성장하는데 유익한 자양분으로 이용되는데, 벼짚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토양에 공급해 주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유효규산의 함량이 증가하고 땅심이 높아져 쌀 수량 증가와 함께 완전미 비율도 증대되며, 광엽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논에서는 잡초방제에도 효과가 있다.
- 논에서 생산되는 벼짚 500kg에는 질소 3.5, 인산 4.8, 칼리 17, 규산 52.5, 유기물 145kg 등 다양한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논들은 대부분 규산함량이 부족한 산성토양으로 3년 주기로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를 10a당 200kg 정도 살포해 주면 산성토양의 개량은 물론 벼를 튼튼하게 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여름 비율을 높여 수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 전남농기원 정찬수 기술보급과장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농민들의 근심이 크지만, 땅심을 높여 풍년농사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밭토양 적정 시비관리 필요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밭토양에 대한 화학적 특성과 전남 주요 밭작물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의 화학적 성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밭작물은 적정 시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토양분석 결과, 유효인산의 함량은 621mg/kg으로 권장수준(300~550mg/kg)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토양 EC·pH와 유기물 등 일반 성분은 전반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토양의 시비량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양 EC(전기전도도)는 2001년 최초 조사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향후 밭토양의 주요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전남 주요 밭작물인 배추·마늘·대파·양파에 대한 비료 사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 결과, 퇴비는 약 2.2톤/10a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표준 시용량보다 많아 질소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kg/10a 정도 추가 시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선국 박사는 “질소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시비성분이기에는 하나, 과다시비 할 경우 식물체의 조직을 연약하게 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병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물과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쌀 함량 60%로 만든 쌀 맥주 개발

- 소비자 평가 결과 쌀 맥주 호응도가 밀 맥주의 2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하여 목 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쌀 맥주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제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내 하우스 맥주 출고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남농업기술원은 우리 쌀이 다량 함유된 수제 맥주를 개발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가면서 쌀 소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 쌀 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맥아의 일부를 쌀로 대체한 것으로 쌀 60%와 보리맥아 40%를 첨가해 상면발효법으로 제조한 에일 형태의 맥주이다. 개발한 에일형 쌀 맥주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라거 형태의 보리 맥주에 비해 목 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 또한 개발한 제품을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위한 시음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밀로 만든 에일형 맥주보다 더 맛있다 68%”으로 쌀 맥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쌀 맥주】



【쌀 맥주 시식회】



【쌀 맥주 시식회】

■ 전남농기원, 매실 하반기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

- 내년을 위한 발 빠른 예방법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내년도 매실 안정생산을 위해 금년 하반기 주요 병해충 종합관리 요령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하였다.
- 최근 매실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병해충의 발생양상을 보면 복숭아씨살이좀벌, 갈색날개매미충, 고약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복숭아씨살이좀벌과 갈색날개매미충은 방치 할 경우 피해가 극심하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유기재배에 적용 가능한 방제법을 개발하고 있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땅에 떨어지거나 매달려있는 피해 과실의 종자속에서 월동하여 내년 과일에 피해를 준다.
- 그러므로 과실 종자를 주워 없애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모든 농가가 동참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년생 가지에 알을 낳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 전 산란가지를 잘라주어 내년에 부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뽕나무깍지벌레의 분비물은 고약병 발생을 촉진하므로 겨울철 깍지벌레 방제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갈색날개매미충 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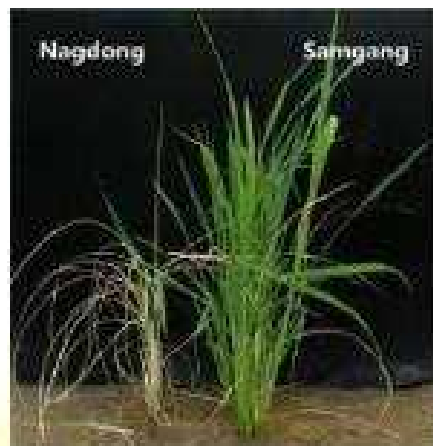
【고약병】

■ 가뭄에도 잘 자라는 벼 육종소재 개발

- 가뭄 저항성 가진 육종소재 개발로 신품종 벼 육성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가뭄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가뭄에 강한 벼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소재를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된 육종소재는 밥쌀용 품종 『낙동벼』에 통일형 품종 『삼강벼』의 유전자를 교배한 가뭄 저항성 계통(SNDH-42)이다.
- 또한, 분자표지마커를 이용해 가뭄 저항성 계통의 조기선발 및 교배와 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 이 육종소재는 모내기 후 생육 초기에 가뭄이 들더라도 벼의 원줄기 분화가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 벼 생육 초기에 가뭄이 들면 가뭄에 민감한 품종은 벼 생육에 필요한 원줄기 분화가 50% 이상 감소하지만 가뭄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좌 3개가 벼 품종에 포함돼 있으면 감소율이 약 15%로 낮아진다.
- 이번에 개발한 육종소재도 가뭄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좌를 3개 포함하고 있어 재배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통일형 품종 삼강벼의 가뭄 저항성 정도】

■ 밀과 보리, 파종 적기를 놓쳤다면 이듬해 봄에 하세요

-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것이 늦가을 파종 때보다 수량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동계작물인 밀과 보리의 파종기를 맞아 파종 적기를 놓칠 경우 가을 늦게 파종하는 것보다는 이듬해 봄에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 밀·보리의 가을 파종 적기는 북부 지방은 10월 10~25일까지, 남부 지방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이 시기가 지나 파종을 하면 추위로 인한 피해 및 생육부진 등으로 수량이 떨어진다.
- 파종 적기가 지난 경우에는 이듬해 이른 봄에 파종하는 것이 작물의 원활한 생육에 유리하며, 수량도 5%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봄 파종의 경우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늘리고 파성이 낮은 품종을 선택해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 봄 파종 시에는 파성이 낮은 품종을 선택해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25% 이상 늘리고, 시비량은 가을 파종과 같은 질소질 비료를 주되 전량 밀거름으로 준다.
- 파종 시기는 남부 지방 기준 2월 하순~3월 상순까지로, 평균 기온이 0℃ 이상이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 초기에 싹을 잘 틔우기 위해서는 흙덮기를 1~2cm로 얇게 하고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풀사료, 눌러주고 물길 만들어 겨울 준비 하세요

- 뿌리 마르고 어는 피해 막으면 생산량 15%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조금 높고 강수량은 약간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풀사료 생산량이 줄 수 있다며 꼼꼼한 작물 관리를 당부했다.
- 작물을 눌러주면 뿌리가 토양에 밀착돼 수분이 보존되고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또한 가지치기(분얼)가 왕성해져 봄철 이삭이 나는 개체수가 충분히 확보돼 수량도 늘어난다.
- 특히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흙 표면에 넓게 퍼져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한다.
- 눌러주기는 트랙터에 롤러를 부착해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때 트랙터를 너무 빠르게 운행하면 누르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눌러줘야 된다.
- 겨울철 눈이나 비가 오면 논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므로 미리 물 빠짐이 잘 되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한다.
-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아울러 따뜻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어 지나치게 웃자랄 때는 한 번 베어주는(예취) 것이 겨울을 나는 데 유리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세계시장 석권한 국산 접목선인장, 새 품종 선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새롭게 개발한 수출용 접목선인장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1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에 평가받는 품종은 2016년도에 육성돼 2017년 초 농가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는 접목선인장 『아홍』, 『아성』, 『아황』, 『아울』 4품종으로 색상과 수량성이 우수하다.
- 『아홍』 품종은 진한 적색으로 색상이 매우 선명하며 재배 10개월이 지나면 자구(어린 선인장)가 평균 15.4개나 생기고 위치도 가장자리마다 고루 분포해 증식력과 균형미가 우수하다.
- 『아성』 품종은 오렌지색으로 색상이 밝고 증식력이 우수해 자구가 평균 21.6개나 생성된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선호하는 오렌지색을 가진 품종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아황』 품종은 진한 황색으로 고유 색상이 변색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형광 특성을 지닌다. 증식력이 매우 우수해 평균 26.9개의 자구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량 증식과 신속한 보급이 유리하다.
- 『아울』 품종은 황색과 적색이 어울려 선명하고 독특한 색이 눈길을 끌며 주력 시장인 미국과 네덜란드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구는 평균 16.4개 생성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아홍】



【아성】



【아황】



【아울】

■ 우리 품종으로 생산한 돼지고기, 부드럽고 고소해

- 씨수돼지로 외국종 대신 우리흑돈 활용... 고급육 생산 쉬워 -
- 농촌진흥청은 씨돼지의 품종 다양화와 고기 품질 향상,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구매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두록』종 대신 『우리흑돈』을 씨수돼지로 활용해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 전문가의 관능평가 결과, 우리흑돈을 활용해 만든 돼지고기는 두록종을 사용한 고기(대조구)에 비해 고기 색과 향, 부드러움의 점수가 5~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화학적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흑돈으로 만든 고기는 근내지방(마블링)과 전단력(씹힘 정도)이 대조구보다 우수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흑돈은 토종 재래돼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씨돼지 축진듀록을 계획 교배해 만든 국산 돼지이다.
- 전국 3곳의 거점농장을 육성해 지난해 흑돼지 사육농가에 59마리를 분양했으며 올해 100마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양돈과(☎ 041-580-3454)로 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우리흑돈】



【우리흑돈을 활용한 돼지고기의 목심】

7 정책 동향



■ '17년 쌀·밭 등 직접지불금 지급(1조 468억원)

- 농업인 당 94만원,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6천명의 계좌에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다.
-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4천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불금별 세부내역

구분	지급액 (억원)	대상자 수 (명)	지급면적 (천ha)	평균지급액 (천원)	평균면적 (ha)
쌀 고정직불금	8,314	804	829	1,034	1.03
밭 직불금	1,733	629	366	275	0.6
조건불리 직불금	421	143	97	294	0.7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 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국립종자원, 내년 호밀 정부보급종 130톤 공급기로 -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내년부터 국산 호밀 보급종자 130톤을 생산하여 국내 축산농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 종자원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한 『호밀 채종 시범사업』을 통해 총 8톤의 종자를 확보하였고, 이중 4톤은 채종용으로 나머지 4톤은 축산농가에게 공급하였다.
- '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22년까지 국내 종자소요량의 50%수준까지 종자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 국산 호밀 보급종은 내년 7월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9월에 해당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부터 채종 단계별 생산체계를 갖추고, 농협·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호밀 보급종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사료용·녹비용 종자의 국산화에 기여함은 물론,
- 호밀 이외에도 총채버·팥 등 쌀 생산조정제에 적용 가능한 작물을 발굴하여 종자를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2017년산 배 수급 안정 대책 추진

- 저품위과 시장 격리, 할인 판매, 수출 확대 등 배 가격 안정화 유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생산량 증가, 추석 기간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배의 수급 안정을 위해 가공용 구매지원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17년산 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공용 구매 지원, 식자재 전용매장 공급 확대, 알뜰배 통합할인 행사, 수출 확대, 소비 촉진 등 총 9,045톤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가공용 배 구매자금 지원, 식자재 전용매장 공급 확대를 통해 상품성이 낮은 저품위 배를 시장에서 격리시켜 정상품위 배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정상품위 배의 경우에는 추석 전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알뜰배 통합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추석 미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 물류비 3%를 추가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는 언론 홍보,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배 기능성, 요리 레시피 등을 집중 홍보하여 배 소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배 소비 확대를 위해 고품질 신품종 재배, 중소과 생산, 공동 마케팅 강화, 소포장 공급 등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농업박람회서 원예농산물 1천억 구매약정

- 전남도, 농협경제지주·전남농협과 체결... 1년간 전남산 공급 -
- 2017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1천억원 상당의 전남 원예농산물 구매약정이 체결됐다.
 - 이번 구매약정은 지난 2014년 10월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와 전라남도지사 간 체결한 전남 농산물 구매 약정과, 올 8월 전남 농협과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 전라남도가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 청과사업국이 구매하는 이번 구매약정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원예농산물 1천억원어치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 전남농협은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선별해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 청과사업국은 이를 구매함으로써 안정적 상품 공급 및 구매선 확보로 상생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 세계 33개 나라 490개 기관·기업·단체·바이어가 참여한 2017 국제 농업박람회 현장에서는 지난 26일 전라남도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수출상담회에서 1천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전라남도 농산물 구매약정까지 진행되면서 비즈니스 박람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3~24일 25개 수매장서 5만 7256가마 매입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섰다.
-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울촌면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지역 25개 수매장에서 공공비축미곡(40kg) 5만 7256가마가 매입된다.
- 매입품종은 새누리·미품 등 2개이며, 이전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우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전국적인 쌀 가격 하락 속 우선지급금과 확정 매입가격의 차액을 환수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에는 수분함량이 13~15% 정도의 쌀이 높은 등급을 받는다”며 “매입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미리 준비하신 후 수매일정에 맞춰 지정장소로 벼를 출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전체 재배면적 2270ha에서 40kg 쌀 28만 6020가마가 수확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친환경 유기농 쌀 전문도정시설 준공식 가져

- 연간 500톤 가공능력과 최신 설비 갖춰 -

- 광양시는 11월 1일 진상면 유기농 벼 재배 단지 내 도정공장 앞에서 친환경 유기농 쌀 전문도정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에 준공된 친환경 유기농 쌀 전문 도정시설은 진상 유기농 쌀 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병현)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3억 1천여만원을 투자해 153m² 규모로 신축됐다.
- 그동안 광양시에는 유기농 쌀 전문도정시설이 없어 인근 고흥 등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운송에 따른 수송비와 도정료 등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해 농가의 부담을 가져왔었다.
- 이번에 준공된 전문도정시설에 색채선별기 등 최신 설비를 완비해 연간 500톤 이상 유기농 쌀 가공능력을 갖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전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자체 도정시설을 갖추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기존의 무농약 쌀 재배 농가들이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하는 2019년부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을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 출처 : 광양시

■ 고흥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고흥군은 지난 2일, 포두면 남성창고에서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을 시작했다.
- 고흥군은 전남 최초로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간 시장 격리곡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0,325가마 많은 513,288가마/40kg을 매입할 계획이다 .
- 고흥군에서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과 편의를 위해 대형포대(톤백) 매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2018년산부터는 공공비축미의 미질 확보를 위하여 다수확 계열인 새누리벼는 매입 품종에서 제외되며, 금년 공공비축미곡 값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내년 1월 중 확정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임에 농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AI 청정지역 사수 총력

- 겨울 철새 등 야생조류 AI 유입 사전 차단 -

- 군은 최근 겨울 철새가 도래하여 서울·경기·전북·강원·충남 등지에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AI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매주 1회 이상 군 방역차량 및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득량만 철새도래지 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에 현수막 게첨 및 출입통제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가금 농가는 철새도래지에 일절 출입 금지토록 하고, 일반인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문 자제 및 방문한 경우 가금 농가에 출입을 금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 특히,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그물망 정비 및 문단속 철저 등 야생조류 AI 차단방역요령을 SMS, 이장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금 농가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힘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2018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신청하세요

-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작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군은 쌀값 하락에 따라 일반농 벼 재배로는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 녹비종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 녹비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12포/5kg), 청보리 140kg(7포/20kg), 호밀 160kg(8포/20kg), 자운영 50kg(2.5포/20kg)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 9~10월에 공급된다.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에 공시된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구입 사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 해남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하세요

- 11월 한달간, 읍면사무소에 경지내역 제출 -

- 해남군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한다.
-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벼 재배농가의 못자리 상토, 비료, 농약 구입비 등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군은 올해 도비 23억 3000만원과 군비 34억 9000만원을 합쳐 총 5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경우와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최소 0.1ha, 최대 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군은 타 시군 경작농지 조회 및 신청농지 경작 확인을 거쳐 1ha당 지급단가를 결정하고 내년 1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9200농가, 1만 1143ha에 총 56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 출처 : 해남군



■ 대만, 남아프리카산 사과 유충 발견 수입 잠정 중단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방검국) 까우슝 분국은 지난 10월 12일 남아프리카 수입산 사과에서 살아있는 코드린나방유충(*Cydia pomonella*-사과를 갉아먹는 벌레)이 발견되어 남아프리카산 사과 수입을 잠정적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 살아있는 코드린 나방 유충이 대만 수입 검역 시 발견된 건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동 건 발표 이후 남아프리카산 사과 수입 잠정 중단은 물론 수입산 사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전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만 까우슝 방검국은 남아프리카산 사과로부터 살아있는 유충을 검출하여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한 결과 코드린 나방 유충이라고 밝혔다.
- 대만 『사과 유충 발생국가 또는 지역 사과 수입 검역처리조건』 규정에 의거하여 동 건과 관련된 총 1,176CTN(총21,462kg) 남아프리카산 사과는 모두 소각 및 반송 처리되었고, 공고 이후 즉시 남아프리카산 사과는 수입이 잠정 중단되었다.
- 남아프리카 정부 기관이 원인을 명확히 해명하고 개선 조치 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위험성이 없다고 확인 될 경우에만 남아프리카산 사과 수입은 정상회복이 될 것이라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일본, 2016년 일본의 절화수입 13억본 돌파

- 2016년의 절화수입량은 13억 1,382만 본으로 전년보다 3%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억 본을 넘은 것은 3년만으로 일본농림수산성의 조사에서는 주요 3품목이 수입량이 늘었으며 전년대비 국화는 5%, 장미는 2%, 카네이션이 6% 상회하였다.
- 증가요인은 일본 자국 산의 출하가 적은 시기를 노려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국화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억 1,244만 본으로 특히 증가가 눈에 띈 것은 6,990만 본이 수입된 (전년 대비 21% 증가) 베트남산으로 수입상사도 베트남 산의 증가가 전체량의 최저수준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량을 매년 10% 이상 증가를 계속하고 있으며 주력인 스프레이 국화와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생화와 조합한 각색에 사용하기 편한 화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자국산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업무 수요가 지금까지 주체였다. 일본용으로 1상자들이 본수를 변경하는 등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의 상황에서 요청받게 되었다고 도매회사는 보고 있다.
- 국화품종 중에서 룬국(輪菊)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산은 2년 만에 전년을 상회하는 4,697만 본의 수입량을 보였으며 2016년은 일본 내의 기후불순으로 10월 이후 일본산의 룬국이 품귀현상을 보여 수입 산의 구매가 강했다.

- 국화 최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산은 1억 8,434만 본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장미는 전년 대비 2% 상회한 6,237만 본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케냐산의 성장이 견인하였다.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476만 본으로 일본 자국 산이 적은 시기를 노려 안정되게 입하되었다고 도매회사측은 말하고 있다.
- 에티오피아산은 399만 본으로 전년보다 50%증가하였으며 가정 수요를 노려 자국 산과 다른 중대륙 계의 수입을 강화한 상사가 있었으며 작년부터 항공 직행편의 수가 늘어났다고 수입상사는 말하고 있다.
- 베트남 산은 전년 대비 11% 늘어난 520만 본, 에콰도르 산은 22% 늘어났다. 한편 한국산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335만 본으로 나타났다으며, 콜롬비아산도 14% 감소한 564만본, 인도산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수입동향에 대해서는 국화나 카네이션 등 주요품목의 수입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소량씩 시작하고 있는 초화류 등, 수입품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수입상사의 견해도 있다.
- 시사점은 현재 한국내의 화훼시장이 소비부진으로 인한 침체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절화 이외에도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연구가 필요하며 내수시장 부진을 회복하기 위한 수출확대의 노력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1. 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브라질 통화 약세로 인해 1% 이상 하락한 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1%)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1% 하락하였다. 한 주 동안 밀 선물가격은 0.35%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난 6주 중 5번째 하락이었다. 미국 밀에 대한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한 징후들로 인해 밀 선물가격의 하락세를 제한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6%)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6% 하락하였다. 한 주 동안 옥수수 선물가격은 약 0.5센트 하락하였으며, 지난 8월 이후로 옥수수 선물가격은 계속해서 수평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1.3%)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3% 하락하였다. 브라질의 통화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국산 대두보다 남미산 대두가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지면서, 미국 수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대두 선물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과수·약용작물 토양관리는

- 비료사용 절감안정·농산물 생산 위해 책자 발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생산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책자로 『토양 관리 기술을 이용한 GAP 과수 생산』과 『토양 관리 기술을 이용한 GAP 약용작물 생산』을 발간했다.
- 이 책은 올바른 토양 관리, 올바른 비료 사용, 작물종류별 토양 관리 기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 1장에서는 과수·약용작물 토양 관리의 필요성, 밭 토양의 종류, GAP 생산에 적합한 안전한 토양 관리, 토양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 토양 개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2장에서는 올바른 비료 사용의 필요성, 비료사용량 설정 기초이론, 비료 및 양분 관리에서 GAP 규정, 비료사용량 결정 방법과 기준, 흙토람 비료 사용 처방서의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한다.
- 3장에서는 사과 등 14종의 과수와 구기자 등 18종의 약용작물에 대한 재배적지, 적정 토양화학적 기준, 비료 사용 방법, 물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4장에서는 GAP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소개한다.
- 이 책이 보급되면 비료사용 비용 절감,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등 영농현장 기술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 앞두고 무·대추·단호박 요리로 건강 지켜요

- 11월 이달의 식재료 · 조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11월 이달의 식재료로 무·대추·단호박을 선정하고 가정식 조리법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 무는 열량이 적고 섬유소가 많으며, 칼슘·칼륨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다. 특히 천연소화제로 불리는 디아스타제와 항균효과가 높은 글루코나스투틴이 함유되어 소화흡수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 준다.
- 특히 가을에 수확한 무는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높고 맛도 달다.
- 무를 이용한 음식으로는 쇠고기무나물·무소박이김치·무매운볶음 등이 있다.



【쇠고기무나물】



【무소박이김치】



【무매운볶음】

- 대추는 생과로 먹거나 말려서 먹는 것 외에 약재로도 활용된다. 비타민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특히 중풍을 예방하는 비타민 P도 함유돼 있어 약리 효과가 높은 편이다.
- 대추는 윤이 나며 껍질이 깨끗한 것이 좋다. 마른 대추는 주름이 고르며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을 고른다.

- 대추를 활용해 대추소스냉채·대추고기강정·대추영양밥을 조리해 볼 수 있다.



【대추소스냉채】



【대추고기강정】



【대추영양밥】

- 단호박은 맛이 밤처럼 달아 밤호박이라고도 하며 항암 및 감기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돼 있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는 섬유질과 칼륨 등 무기염류가 풍부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찌먹거나 튀겨먹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 재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 단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단호박찹쌀전·고기튀김·갈치조림·타락죽을 소개했다.



【단호박찹쌀전】



【단호박고기튀김】



【단호박갈치조림】



【단호박타락죽】

- 11월의 식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생활문화 - 음식 - 이달의 음식에서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이 시작된다... 입동[立冬]

-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상강(霜降)과 소설(小雪) 사이에 오는 절기로 양력 11월 7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 중국에서는 입동 후 5일씩을 묶어 3후(三候)로 삼았다. 초후(初候), 중후(中候), 말후(末候)가 그것으로 초후에는 비로소 물이 얼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처음으로 땅이 얼어붙으며, 말후가 되면 꿩은 드물어지고 조개가 잡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동을 특별히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한다.
-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요즈음은 김장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 농가에서는 냉해(冷害)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무를 땅에 구덩이를 파고 저장하기도 한다. 추수하면서 들판에 놓아두었던 벳짚을 모아 겨우내 소의 먹이로 쓸 준비도 한다. 예전에는 겨울철에 풀이 말라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벳짚을 썰어 쇠죽을 쑤어 소에게 먹였다.
- 입동을 즈음하여 예전에는 농가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다. 대개 음력으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낱을 받아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하고, 제물을 약간 장만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곳간과 마루 그리고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농사철에 애를 쓴 소에게 고사 음식을 가져다주며 이웃들 간에 나누어 먹었다.

- 입동에는 치계미(雉鷄米)라고 하는 미풍양속도 있었다. 계절별로 마을에서 자발적인 양로 잔치를 벌였는데, 특히 입동(立冬)·동지(冬至)·제석(除夕)날에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치계미라 하였다.
- 입동 무렵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파면 누렇게 살이 썩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 이것으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도랑탕 잔치라고 했다.
- 입동을 즈음하여 점치는 풍속을 입동보기라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속담으로 『입동 전 가위보리』라는 말이 전해온다.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이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친다.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 입동에는 날씨점을 치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아 그해 겨울 추위를 가늠하기도 한다. 대개 전국적으로 입동에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크게 추울 것이라고 믿는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158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